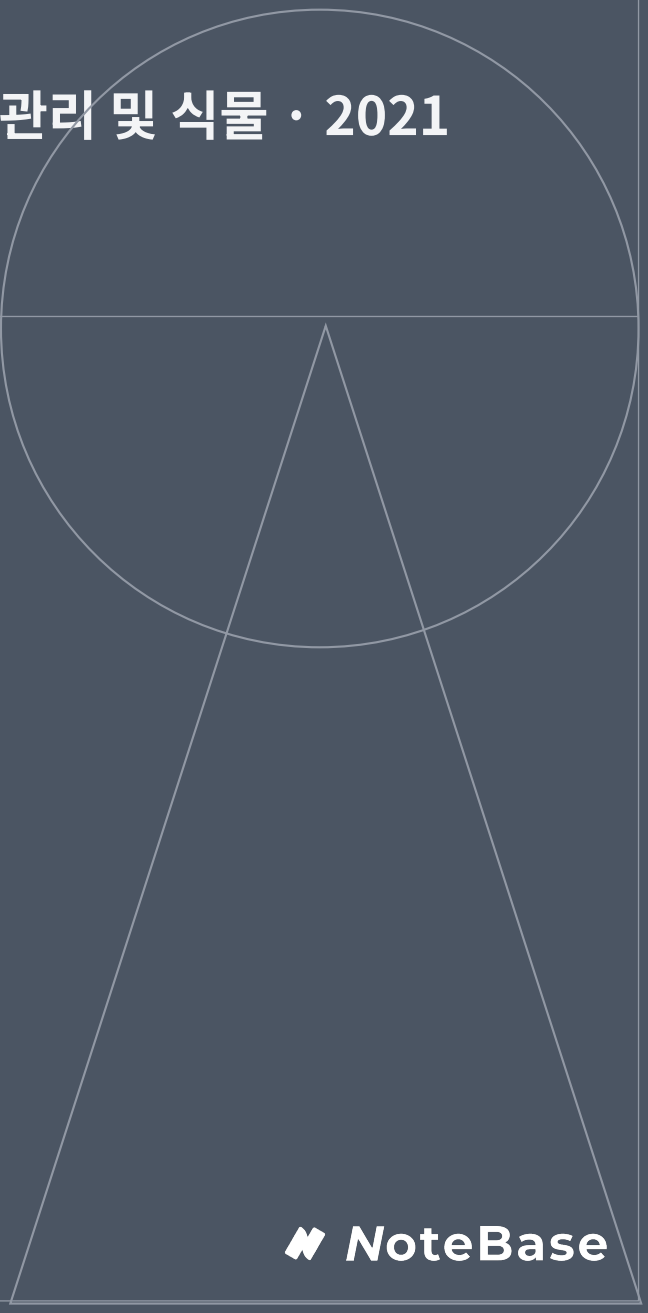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생태계관리 및 식물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생태계관리 및 식물 · 2021

공무원/서울시/7급 · 생태계관리 및 식물 · 2021

문 1. 경관요소의 공간적 배열과 생물서식의 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경관요소의 면적은 클수록 유리하다.

②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경관요소는 같은 면적일 경우 분할되지 않은 상태가 유리하다.

③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경관요소가 분할될 경우 서로 인접하는 것이 유리하다.

④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경관요소가 분할될 경우 직선상 배열이 등 간격으로 모아진 것보다 유리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식지 면적, 분절 여부, 패치 간 인접성, 배열 형태 가운데 생물서식에 유리한 공간배열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물이 서식하는 경관요소는 넓고, 덜 쪼개져 있으며, 서로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분절이 불가피하면 패치가 직선으로 길게 늘어서기보다 서로 가까이 모인 군집형 배열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다.

선지별 해설

1번 O: 서식 가능 면적이 클수록 개체군 규모를 더 크게 유지할 수 있고 먹이원과 은신처도 넉넉해져 생물서식에 유리하다.
2번 O: 같은 총면적이라면 분절되지 않은 연속 서식지가 더 유리하다. 서식지가 쪼개지면 가장자리 효과가 커지고 개체군이 고립되기 쉽다.
3번 O: 분절된 서식지라도 패치끼리 서로 인접해 있으면 개체 이동과 유전자 교류가 쉬워져 더 유리하다.
4번 X: 틀린 부분은 '직선상 배열이 등 간격으로 모아진 것보다 유리하다'이다. 직선상 배열은 끝부분 패치의 고립 가능성이 크고 이동 경로도 제한되기 쉽다. 올바르게는 분절된 서식지는 직선상 배열보다 서로 가까이 모인 군집형 배열이 더 유리하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모두 분절된 서식지의 배치를 다루므로 헷갈리기 쉽다. ③은 패치 간 거리가 가까운가를 묻는 진술이라 맞고, ④는 직선상 배열을 군집형 배열보다 우수하다고 바꾸어 말한 진술이라 틀리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식지 공간배열 문제는 면적이 큰가, 덜 분절되었는가, 패치 간 거리가 가까운가, 군집형으로 모여 있는가의 순서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서식지는 넓게, 덜 쪼개지게, 가깝게, 모여 있게가 기본 원칙이다.

NoteBase

문 2. 우리나라 공원에서 잔디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① 방해극상 관리

② 이차천이 관리

③ 기후극상 관리

④ 일차천이 관리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잔디밭 유지가 어떤 극상·천이 개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방해극상 관리는 예초, 제초, 방목처럼 지속적인 방해로 군락을 자연적인 최종 상태로 보내지 않고 일정 단계에 머물게 유지하는 개념이다.
기후극상은 지역의 기후 조건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최종 안정 군락이다.
일차천이는 토양이 없는 나지에서 시작되는 천이이고, 이차천이는 기존 토양이 남아 있는 곳에서 교란 뒤 다시 진행되는 천이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생태계관리 및 식물 · 2021

선지별 해설

① O
잔디밭은 그대로 두면 더 키 큰 초본이나 다른 식물로 천이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예초와 제초로 이를 계속 막아야 한다. 이렇게 지속적인 방해로 현재의 잔디 군락을 유지하는 개념이 방해극상 관리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이차천이 관리"이다.
이차천이는 기존 토양이 있는 곳에서 식생이 다시 변화해 가는 과정 자체를 말한다. 이 문장은 천이를 진행시키는 상황이 아니라 그 진행을 억제하여 잔디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므로 올바르게는 방해극상 관리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기후극상 관리"이다.
기후극상은 해당 지역 기후에서 자연적으로 도달하는 최종 안정 군락을 뜻한다. 공원의 잔디밭은 자연 최종 군락이라기보다 인위적 관리가 있어야 유지되므로 올바르게는 방해극상 관리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일차천이 관리"이다.
일차천이는 토양이 거의 없는 맨땅이나 암석면에서 시작되는 천이이다. 이 문제는 새로운 기반에서 식생이 처음 형성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조성된 잔디밭을 반복 관리로 유지하는 상황이므로 올바르게는 방해극상 관리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천이 개념과 ③의 극상 개념을 섞으면 틀리기 쉽다. 천이는 식생이 바뀌어 가는 과정이고, 방해극상은 그 과정을 예초·제초 같은 인위적 방해로 멈춰 특정 군락을 유지하는 상태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유지한다"는 표현이 보이면 자연적인 천이 진행인지, 인위적 방해로 상태를 고정하는지부터 구분한다. 유지, 억제, 예초, 제초가 핵심어이면 방해극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천이는 진행 과정이고, 기후극상은 자연 종착 상태이며, 방해극상은 인위적 방해로 고정된 군락이다.

NoteBase

문 3.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촌경관이 우수한 지역 보존

② 도시의 생태적 공간을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실현

③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훼손된 지역과 비오톱을 복원

④ 도시민의 휴양공간 확보와 배치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환경생태계획이 실제로 담는 핵심 내용이 도시 생태공간의 보전·연결·복원·휴양이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환경생태계획은 도시의 비오톱과 생태공간을 대상으로 보전, 연결, 복원, 휴양, 환경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핵심 판단축은 농촌경관 일반의 보전이 아니라 도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고 회복할 것인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농촌경관이 우수한 지역 보전은 농촌경관 보전이나 일반 경관계획의 성격에 가깝다. 틀린 부분은 "농촌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다. 올바르게는 도시의 생태적으로 중요한 비오톱과 녹지축을 보전하는 내용이 환경생태계획에 해당한다.

② O
도시의 생태적 공간을 연결해 네트워크를 실현하는 것은 환경생태계획의 대표 내용이다. 단절된 녹지, 수변축, 서식공간을 이어 생태 기능과 생물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③ O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훼손된 지역과 비오톱을 복원하는 내용도 환경생태계획에 포함된다.
환경생태계획은 현황 보전에 그치지 않고 훼손지의 생태적 회복까지 다룬다.

④ O
도시민의 휴양공간 확보와 배치 역시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이다. 생태 보전과 시민 이용을 함께 고려하여 휴식과 생태 기능이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경관"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환경생태계획의 중심 대상은 농촌경관 일반이 아니라 도시 생태공간과 비오톱이다. 경관 보전이라는 넓은 표현과 환경생태계획의 구체 항목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답으로 이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비오톱 보전, 생태 네트워크 연결, 훼손지 복원, 휴양공간 배치가 나오면 환경생태계획의 핵심 내용으로 본다. 반대로 농촌경관 일반, 경관미 중심 표현이 나오면 다른 계획 개념이 섞였는지 먼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환경생태계획은 보전-연결-복원-휴양의 계획이고, 농촌경관 일반 보전은 핵심 항목이 아니다.

NoteBase

문 4. 서식지의 파편화(fragmentation)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식지의 총량 감소
② 평균 서식지 조각(patch) 크기의 증가
③ 서식지 조각(patch)의 수 증가
④ 서식지 조각(patch) 고립의 증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식지 파편화가 일어날 때 패치의 면적, 개수, 고립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서식지 파편화는 하나의 연속된 서식지가 여러 개의 작은 패치로 쪼개지는 현상이다. 이때 총 서식지 면적은 줄어들기 쉽고, 패치 수와 패치 간 고립은 커지며, 평균 패치 크기는 작아지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1번 O: 파편화는 개발이나 도로 개설 등으로 연속된 서식지를 줄여 놓으므로 서식지의 총량 감소가 흔히 나타난다.
2번 X: 틀린 표현은 "평균 서식지 조각(patch) 크기의 증가"이다. 파편화가 진행되면 큰 서식지가 여러 작은 패치로 나뉘므로 평균 패치 크기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이다.
3번 O: 하나의 서식지가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므로 서식지 조각의 수는 증가한다.
4번 O: 패치들이 서로 떨어져 남게 되므로 개체 이동이 어려워지고 서식지 조각의 고립이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패치 수가 늘어난다는 사실만 보고 서식지 규모도 함께 커진다고 착각하면 2번에 흔들린다. 파편화는 "조각 수 증가"와 "조각 크기 감소"가 동시에 가는 개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파편화가 나오면 먼저 "하나의 큰 서식지가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쪼개진다"는 그림을 떠올리면 된다. 그러면 총량은 감소, 조각 수는 증가, 평균 조각 크기는 감소, 고립도는 증가로 바로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파편화는 "면적 감소, 조각 수 증가, 조각 크기 감소, 고립 증가"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5. 생태계 내 종간에는 상호 작용을 형성한다. 생물종간 상호 관계를 옳게 짝지은 것은?

① 졸참나무 - 참나무겨우살이(중립)

② 메뚜기 - 개구리(편리공생)

③ 아까시나무 - 뿌리혹박테리아(상리공생)

④ 소나무 - 진달래(경쟁)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물종간 상호작용의 유형을 대표 사례와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립은 함께 살아도 서로에게 영향이 거의 없는 관계이다.
편리공생은 한 종만 이익을 얻고 다른 종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관계이다.
상리공생은 두 종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기생은 한 종이 이익을 얻고 다른 종은 피해를 받는 관계이며, 포식은 한 종이 다른 종을 먹는 관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참나무겨우살이는 숙주인 졸참나무에서 물과 무기양분을 얻으므로 기생 관계이다.
틀린 표현은 "중립"이다. 올바르게는 "기생"이다.

② X
개구리는 메뚜기를 먹는 포식자이므로 두 종의 관계는 포식-피식 관계이다.
틀린 표현은 "편리공생"이다. 올바르게는 "포식"이다.

③ O
뿌리혹박테리아는 질소를 고정해 아까시나무에 공급하고, 아까시나무는 박테리아에 서식처와 유기물을 제공하므로 서로 이익을 주는 상리공생이다.

④ X
소나무와 진달래는 이 문항에서 묻는 전형적 경쟁 관계로 보기 어렵다. 진달래는 소나무림의 산성이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함께 나타나는 대표 수종이므로, 이 선지는 대표 사례 연결이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경쟁"이다. 올바르게는 "소나무림에서 함께 나타나는 공존 사례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둘 다 식물이므로 바로 경쟁으로 넘기기 쉽다는 점이 함정이다. 이 문항은 막연한 인상보다 교과서적 대표 사례를 정확히 연결하는지가 핵심이며, ①의 겨우살이와 ②의 개구리-메뚜기 관계를 먼저 확실히 지우면 ③이 선명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간 관계 문제는 먼저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부터 본다. 한쪽만 이익이면 기생 또는 편리공생을 가르고, 둘 다 이익이면 상리공생, 한쪽이 다른 쪽을 먹으면 포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겨우살이=기생, 개구리-메뚜기=포식, 뿌리혹박테리아=상리공생으로 연결해 두면 같은 유형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NoteBase

문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저류시설

② 여과형 시설

③ 인공습지

④ 침투시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을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강우 시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이다. 자연형 시설은 토양·식생·습지 같은 자연 요소를 활용하고, 장치형 시설은 여과재나 분리장치 같은 설비를 중심으로 처리한다.

핵심 구분

시행규칙 별표 6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로 나눈다. 자연형 시설에는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등이 포함되고, 여과형 시설은 장치형 시설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유출량과 오염부하를 줄이는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이다.

② X
여과형 시설은 여재나 필터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장치형 시설이다.
틀린 표현: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올바른 표현: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③ O
인공습지는 습지의 정화 기능을 이용하는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이다.

④ O
침투시설은 빗물을 지중으로 스며들게 하여 유출과 오염부하를 줄이는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자연형과 장치형을 기능만 보고 섞어 외우면 여과형 시설을 자연형으로 착각하기 쉽다. 여과라는 말 때문에 식생이나 토양을 통한 자연 정화와 비슷해 보이지만, 법령상 분류는 장치형 시설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 문제에서 시설 종류를 묻으면 먼저 분류표의 큰 묶음부터 확인한다. 저류·습지·침투처럼 자연 매체를 활용하면 자연형이고, 여과·스크린·분리처럼 설비 중심이면 장치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저류·습지·침투는 자연형, 여과는 장치형이다.

NoteBase

문 7.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수종은?

<보기>
• 수고가 20~30m에 달하는 좁은 타원형의 수형을 가진 낙엽활엽교목으로 수피는 회갈색이다.
• 내한성이 강하여 북부지방에서도 식재하기 좋다.
• 실생, 삽목, 취목으로 번식이 가능하다.
• 암수딴그루로 3~5월에 꽃잎과 꽃받침이 없는 꽃이 잎보다 먼저 피나 관상가치는 높지 않다.
• 열매는 굽은 원주형으로 3~5개씩 달리며 종자는 편평하고 한쪽에 날개가 있다.
• 심장형 잎과 노란색 혹은 주황색으로 물드는 단풍이 아름다워 경관수나 독립수로 적당하나 보행로 가로수로도 식재한다.

① Styphnolobium japonicum
② Osmanthus fragrans
③ Cercidiphyllum japonicum
④ Abies holophylla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형, 잎 모양, 암수딴그루 여부, 개화 시기, 열매와 종자 형태를 종명과 연결하여 수종을 동정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Cercidiphyllum japonicum은 계수나무로, 낙엽활엽교목이며 심장형 잎과 황색 또는 주황색 단풍이 대표 형질이다.
Styphnolobium japonicum은 회화나무로, 우상복엽과 협과를 가지는 콩과 수목이다.
Osmanthus fragrans은 금목서로, 상록활엽수이며 향기 강한 가을 꽃이 특징이다.
Abies holophylla는 전나무로, 바늘잎과 구과를 가지는 상록침엽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Styphnolobium japonicum은 회화나무로 콩과의 낙엽활엽교목이다. 우상복엽을 가지며 여름에 원추꽃차례가 피고 열매는 협과이므로, <보기>의 '심장형 잎', '암수딴그루', '굵은 원주형 열매와 날개 달린 종자'와 맞지 않는다. 틀린 연결은 계수나무의 형질을 회화나무에 붙인 점이며, 올바르게는 회화나무는 우상복엽과 협과를 가진다.

② X
Osmanthus fragrans은 금목서로 상록활엽 소교목 또는 관목이다. 향기 강한 꽃이 가을에 피고 잎은 두껍고 마주나므로, <보기>의 낙엽성, 잎보다 먼저 피는 봄꽃, 심장형 잎, 날개 달린 종자와 맞지 않는다. 틀린 연결은 계수나무의 낙엽성과 열매 특징을 금목서에 적용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금목서는 상록수이고 가을 향기꽃으로 구별된다.

③ O
Cercidiphyllum japonicum은 계수나무이다. 좁은 타원형 수형의 낙엽활엽교목이고 내한성이 강하며, 암수딴그루로 잎보다 먼저 꽃잎과 꽃받침이 없는 꽃이 핀다. 심장형 잎이 노란색 또는 주황색으로 단풍들고, 원주형 열매와 한쪽에 날개가 있는 편평한 종자를 가져 <보기>와 일치한다.

④ X
Abies holophylla는 전나무로 상록침엽교목이다. 바늘잎과 직립하는 구과를 가지며 암수한그루이므로, <보기>의 낙엽활엽수, 심장형 잎, 암수딴그루, 편평한 날개 종자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틀린 연결은 침엽수 전나무에 활엽수 계수나무의 형질을 붙인 점이며, 올바르게는 전나무는 상록침엽수로 바늘잎과 구과가 특징이다.

오답 포인트

수고가 큰 가로수라는 공통점만 보면 회화나무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결정 단서는 '심장형 잎', '암수딴그루', '잎보다 먼저 피는 무화피화', '날개 달린 편평한 종자'이므로, 생식기관과 잎 형태를 먼저 보면 오답이 줄어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종 동정 문항은 먼저 잎이 심장형 활엽인지, 우상복엽인지, 상록 마주난 잎인지, 침엽인지로 큰 갈래를 나눈다. 다음으로 암수딴그루 여부, 개화 시기, 열매와 종자 형태를 대조하면 계수나무를 빠르게 가려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계수나무는 심장형 잎, 암수딴그루, 이른 봄꽃, 날개 달린 종자, 황주색 단풍으로 기억되는 수종이다.

NoteBase

문 8. 만경목(덩굴나무)에 해당하지 않는 수종은?

① Wisteria floribunda

② Campsis grandiflora

③ Hedera rhombea

④ Tamarix chinensis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만경목, 즉 다른 식물이나 구조물을 타고 오르는 덩굴성 목본 식물을 수종명으로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만경목은 줄기가 스스로 곧게 서기보다 다른 지지물을 감거나 붙어서 자라는 덩굴성 목본이다.
Wisteria floribunda는 등나무로 대표적인 만경목이다.
Campsis grandiflora는 능소화로 덩굴성 목본이다.
Hedera rhombea는 송악으로 부착근을 이용해 타고 오르는 만경목이다.
Tamarix chinensis는 위성류로 직립성 관목 또는 소교목이어서 만경목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Wisteria floribunda는 등나무이다. 등나무는 줄기가 감기듯 자라며 다른 수목이나 구조물을 타고 오르는 전형적인 만경목이다.

② O
Campsis grandiflora는 능소화이다. 능소화는 담장이나 수목을 타고 자라는 덩굴성 목본이므로 만경목에 해당한다.

③ O
Hedera rhombea는 송악이다. 송악은 부착근으로 바위나 나무줄기에 붙어 오르는 상록성 덩굴나무이므로 만경목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Tamarix chinensis를 만경목으로 본 점이다. Tamarix chinensis는 위성류로 해안가 등에 자라는 직립성 관목 또는 작은 교목이다. 올바르게는 "Tamarix chinensis는 만경목이 아니라 직립성 관목 또는 소교목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학명만 보고 모두 외래 덩굴식물처럼 묶어 판단하면 오답이 된다. ④의 Tamarix chinensis는 덩굴이 아니라 곧게 서는 위성류라는 생활형 차이를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만경목 여부는 학명 자체보다 생육 형태로 판단한다. 줄기가 다른 대상에 의존해 감거나 붙어 오르면 만경목이고, 줄기가 스스로 직립하면 만경목이 아니다.

암기 포인트

등나무·능소화·송악은 타고 오르고, 위성류는 곧게 선다.

NoteBase

문 9.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지정 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지정에 대해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시 · 도지사 및 군수,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 시 관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지정 절차의 주체, 필수 절차, 의견 제출 기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지정권자는 환경부장관이고, 주민설명회·공청회와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의견 제출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30일이라는 점이다.

용어 풀이

의견 청취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협의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사전에 조정하는 절차이다.

핵심 구분

국립공원 지정 절차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순서로 진행된다.
의견 제시 요청이나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지정권자를 직접 묻는 선지로서 옳다.

② O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법정 절차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다.

③ X
시·도지사 및 군수,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기간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틀린 표현: "60일 이내"
올바른 표현: "30일 이내"

④ O
지정 절차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 청취가 포함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를 요구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절차 자체는 맞게 써 놓고 기간 숫자만 바꾼 선지이다. 절차 순서만 외우고 기간을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30일을 60일로 바꾼 함정에 걸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립공원 지정 절차 문제는 주체, 절차, 기간을 따로 나누어 본다. 누가 지정하는지, 어떤 절차를 차례로 거치는지, 의견 제출이 며칠 이내인지까지 확인하면 숫자만 바꾼 오답을 바로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 지정, 주민설명회·공청회 후 지자체 의견 청취·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의견 제출은 30일이다.

NoteBase

문 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 중 <보기>에 해당하는 등급은?

<보기>
대상지 일부에 대하여 보전을 하고 잔여지역은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비오톱 유형

① 2등급
② 3등급
③ 4등급
④ 5등급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상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의 문구를 정확히 대응시키는지 묻는다.

용어 풀이

비오톱 유형평가 = 대상지의 생태적 보전 필요성과 토지이용 가능성을 종합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 분류이다.

핵심 구분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은 보전 필요성이 클수록 1등급에 가깝고, 토지이용 허용 범위가 커질수록 4등급과 5등급으로 간다.
3등급은 '대상지 일부 보전 + 잔여지역은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에 해당한다. 2등급은 전체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유형이고, 4등급은 일부 보전 문구 없이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유형이며, 5등급은 도시생태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유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2등급은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이다. 제시문처럼 대상지 일부를 보전하고 잔여지역의 토지이용을 함께 허용하는 단계보다 보전 필요성이 더 크다.
틀린 표현: 2등급
올바른 표현: 3등급
② O: 3등급은 '대상지 일부에 대하여 보전을 하고 잔여지역은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비오톱유형'이다. 제시문과 시행규칙 문구가 그대로 일치한다.
③ X: 4등급은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비오톱유형'이다. 일부 보전이라는 조건이 빠져 있어 제시문보다 한 단계 이용 중심이다.
틀린 표현: 4등급
올바른 표현: 3등급
④ X: 5등급은 '도시생태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이다. 보전과 잔여지역 토지이용의 병행이 아니라 개선 필요성이 핵심이다.
틀린 표현: 5등급
올바른 표현: 3등급

오답 포인트

3등급과 4등급은 둘 다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 문구가 들어가 혼동하기 쉽다. 여기서 3등급을 가르는 핵심은 앞에 붙는 '대상지 일부에 대하여 보전'이라는 조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등급 문구에 '전체 보전'인지, '일부 보전 후 잔여지역 이용'인지, '토지이용 중심'인지, '개선 필요'인지를 차례로 대입하면 된다. 일부 보전과 잔여지역 이용이 함께 나오면 3등급이다.

암기 포인트

2등급 보전, 3등급 일부 보전+잔여지 이용, 4등급 이용, 5등급 개선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1. 상록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Euonymus japonicus

② Taxus cuspidata

③ Platycladus orientalis

④ Larix kaempferi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목의 상록성 여부를 학명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상록수는 잎이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고 연중 녹색 잎을 유지하는 수목이다.
낙엽수는 계절 변화에 따라 잎이 일정 시기에 떨어지는 수목이다.
이 문항의 결정 차이축은 학명에 대응하는 수종이 상록수인지 낙엽수인지이다.
Euonymus japonicus는 사철나무로 상록활엽수이고, Taxus cuspidata는 주목으로 상록침엽수이며,
Platycladus orientalis는 측백나무로 상록침엽수이다.
Larix kaempferi는 일본잎갈나무로 침엽수이지만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낙엽침엽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Euonymus japonicus는 사철나무로 상록활엽수이다.
틀린 부분은 이 수종을 '상록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상록수에 해당한다.

② X
Taxus cuspidata는 주목으로 상록침엽수이다.
틀린 부분은 이 수종을 '상록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상록수에 해당한다.

③ X
Platycladus orientalis는 측백나무로 상록침엽수이다.
틀린 부분은 이 수종을 '상록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상록수에 해당한다.

④ O
Larix kaempferi는 일본잎갈나무로 낙엽침엽수이다.
침엽수라는 점만 보고 상록수로 오해하기 쉽지만, 잎갈나무류는 침엽수이면서도 계절적으로 낙엽하는 대표 수종이므로 발문에 맞는다.

오답 포인트

침엽수는 모두 상록수라고 단순화하면 ④를 놓치게 된다. 이 문항은 '침엽수=상록수'라는 기계적 연결을 깨고, 잎갈나무류가 낙엽침엽수라는 예외를 묻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명 문제가 나오면 먼저 국명으로 바꾸고, 그 다음 상록활엽수·상록침엽수·낙엽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정하면 된다. 특히 잎갈나무류처럼 침엽수이면서 낙엽하는 예외 수종을 우선 점검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사철나무·주목·측백나무는 상록수이고, 잎갈나무는 낙엽침엽수이다.

NoteBase

문 12. 양수와 음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수와 음수는 내음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② 양수는 그늘에서 생육이 어려운 나무이다.

③ 음수는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이다.

④ 음수는 햇빛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양수와 음수의 구분 기준과 각각의 생육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양수는 강한 빛을 필요로 하고 그늘에 대한 내성이 약한 수종이다. 음수는 약한 빛이나 그늘에서도 견디며 자랄 수 있는 수종이다. 양수와 음수의 구분 축은 햇빛에 대한 절대적 호오가 아니라 내음성의 크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양수와 음수는 그늘을 견디는 정도, 즉 내음성의 차이에 따라 구분한다.
② O: 양수는 광요구도가 높아서 그늘진 환경에서는 생육이 불량해지기 쉽다.
③ O: 음수는 내음성이 커서 그늘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는 나무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햇빛을 좋아하지 않는다'이다. 음수는 햇빛을 전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빛이나 그늘에서도 잘 견디고 생장할 수 있는 나무이다.

오답 포인트

음수를 '햇빛을 싫어하는 나무'로 단순화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그늘에서도 잘 자람'과 '햇빛을 좋아하지 않음'을 같게 보는 오류를 노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양수·음수 문제는 먼저 구분 기준이 내음성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양수는 강광 요구, 음수는 음지 적응이라는 방향으로 선지를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양수는 햇빛 많이 필요, 음수는 그늘도 견딤이다.

NoteBase

문 13. 개화시기가 가장 빠른 수종은?

① Campsis grandiflora
② Cornus officinalis
③ Albizia julibrissin
④ Lagerstroemia indica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종별 대표 개화 시기를 비교하여 이른 봄에 꽃이 피는 수종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Cornus officinalis는 산수유로,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이른 봄 개화 수종이다.
Campsis grandiflora는 능소화로, 한여름에 개화하는 덩굴성 수종이다.
Albizia julibrissin은 자귀나무로, 초여름부터 여름 사이에 꽃이 핀다.
Lagerstroemia indica는 배롱나무로, 여름부터 늦여름까지 꽃이 피는 대표적 하계 개화 수종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Campsis grandiflora는 능소화로 개화기가 대체로 7~8월이다. 틀린 표현은 '가장 빠른'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여름에 개화하는 수종'이다.
② O: Cornus officinalis는 산수유로 잎이 나오기 전 이른 봄에 노란 꽃이 먼저 핀다. 네 수종 중 개화 시기가 가장 빠르다.
③ X: Albizia julibrissin은 자귀나무로 개화기가 대체로 6~7월이다. 틀린 표현은 '가장 빠른'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초여름 이후에 개화하는 수종'이다.
④ X: Lagerstroemia indica는 배롱나무로 개화기가 대체로 7~9월이다. 틀린 표현은 '가장 빠른'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한여름 이후에 오래 꽃이 피는 수종'이다.

오답 포인트

능소화, 자귀나무, 배롱나무는 모두 여름꽃 계열이므로 라틴명만 보고 고르면 혼동하기 쉽다. 산수유만 이른 봄에 꽃이 피는 수종이라는 계절감이 정답 판단의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종의 라틴명을 모두 외우지 않았더라도 대표 개화 계절을 먼저 나누면 된다. 봄꽃과 여름꽃을 구분하면 산수유가 바로 정답으로 좁혀진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산수유는 봄, 능소화·자귀나무·배롱나무는 여름 개화 수종이다.

NoteBase

문 14.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상 생태·자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자연도는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3등급 권역 그리고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②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별도관리지역 권역은 기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곳으로 개발지역 확장의 제한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지역이다.

④ 2등급 권역은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생태·자연도의 권역 구분과 각 권역의 관리 방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2등급 권역, 3등급 권역, 별도관리지역의 기능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다.

용어 풀이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따라 구분한 지도이다.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는 지역이다.

핵심 구분

1등급 권역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아 보전과 복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역이다. 2등급 권역은 장차 보전가치가 있거나 1등급 권역의 보호에 필요한 주변 지역이다. 3등급 권역은 1등급·2등급·별도관리지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다. 별도관리지역은 개발이 많이 된 지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전지역이나 도시 녹지 관리지역을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생태·자연도는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3등급 권역,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법에서 정한 기본 분류를 그대로 옮긴 설명이므로 옳다.

② O
1등급 권역은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 주요 생태축,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처럼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관리 방향도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설명이 맞다.

③ X
별도관리지역을 "기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곳" 또는 "개발지역 확장의 제한에 초점을 두는 지역"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3등급 권역이다.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는 지역이다.

④ O
2등급 권역에는 장차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뿐 아니라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도 포함된다. 1등급 권역의 완충지대 성격을 함께 가진다는 점이 맞다.

오답 포인트

별도관리지역과 3등급 권역을 서로 바꾸어 외우면 쉽게 틀린다.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라는 문구는 3등급 권역에 붙고,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전지역이나 도시 녹지 관리지역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개발·이용 대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3등급 권역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선지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전, 역사·문화·경관 가치, 도시 녹지보전이 나오면 별도관리지역으로 판단하면 된다. 1등급 보호를 위한 주변 지역이라는 표현은 2등급 권역의 기준이다.

암기 포인트

1등급은 보전·복원, 2등급은 보전가치·완충, 3등급은 개발·이용,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상 보전지역이다.

NoteBase

문 15. 「조경 설계기준(2019)」에 따른 하천 비탈면 공법의 종류와 최고 허용 유속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초본류 파종 : 1.5m/sec

② 야자섬유두루마리 및 갈대류 : 2.5m/sec

③ 모래 및 초본류 : 3.0m/sec

④ 버드나무 삽목 및 쇄석 : 3.0~5.0m/sec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 설계기준(2019)」 부표 23-3의 하천 비탈면 공법별 최고 허용 유속을 정확히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핵심은 공법 종류와 유속 수치를 표 그대로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최고 허용 유속은 해당 공법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물 흐름 속도이다.

핵심 구분

「조경 설계기준(2019)」 부표 23-3에서는 초본류 파종 1.8m/s, 모래 및 초본류 3.7m/s, 야자섬유두루마리 및 갈대류 2.0m/s, 무생명의 섶단 2.5~3m/s, 생명의 섶단 3~3.5m/s, 버드나무 삽목 및 쇄석 3~5m/s로 제시한다.
따라서 비슷한 수치를 다른 공법에 끼워 넣으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초본류 파종의 최고 허용 유속은 1.5m/sec가 아니라 1.8m/s이다.
- 틀린 표현: 1.5m/sec
- 올바른 표현: 1.8m/s

② X
- 야자섬유두루마리 및 갈대류의 최고 허용 유속은 2.5m/sec가 아니라 2.0m/s이다. 2.5~3m/s는 무생명의 섶단에 해당한다.
- 틀린 표현: 2.5m/sec
- 올바른 표현: 2.0m/s

③ X
- 모래 및 초본류의 최고 허용 유속은 3.0m/sec가 아니라 3.7m/s이다.
- 틀린 표현: 3.0m/sec
- 올바른 표현: 3.7m/s

④ O
- 버드나무 삽목 및 쇄석의 최고 허용 유속은 3~5m/s로 기준과 일치한다.
- 공법 종류와 유속 범위를 모두 맞게 연결한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초본류 파종 1.8m/s, 야자섬유두루마리 및 갈대류 2.0m/s, 모래 및 초본류 3.7m/s처럼 소수 첫째 자리 수치를 비슷하게 바꿔 놓는 함정이 핵심이다. 특히 ②의 2.5m/s는 무생명의 섶단 수치와, ③의 3.0m/s는 버드나무 삽목 및 쇄석의 범위 하한과 섞여 헷갈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하천 비탈면 공법 문제는 공법명과 유속을 한 쌍으로 외워 표와 대조하면 된다. 초본류 파종 1.8, 야자섬유두루마리 및 갈대류 2.0, 모래 및 초본류 3.7, 버드나무 삽목 및 쇄석 3~5를 먼저 확인하면 오답 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초본 1.8, 야자·갈대 2.0, 모래·초본 3.7, 버드나무 삽목·쇄석 3~5이다.

NoteBase

문 16. 「생태·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작성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식생보전등급 I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② 멸종위기 야생생물 1종이 서식하고 있는 습지

③ 지형보전등급이 I등급인 지역(주거지, 시가지 등을 포함한 개발지 및 농경지 제외)

④ 어류가 25종 서식하는 자연호소(외래 및 도입 어류 제외)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2조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작성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 지형 가운데 지침이 정한 고보전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다.

핵심 구분

식생은 식생보전등급 Ⅰ등급과 Ⅱ등급이 모두 1등급 권역 대상이다.
습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종이 있다'처럼 단순화되지 않고, 동물 2종 이상 번식 또는 중요한 생육장인 자연습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 이상 서식 습지, 어류 20종 이상 자연호소 등 구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형은 지형보전등급 Ⅰ등급 지역이 대상이지만 주거지, 시가지 등을 포함한 개발지 및 농경지는 제외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식생보전등급 Ⅰ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12조 제1호 가목의 1등급 권역 작성 대상이다.
2번: X. 일반 습지에 대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1종이 서식'한다는 사정만으로 1등급 권역이 되지는 않는다. 지침은 동물 2종 이상이 번식하거나 생육장으로 중요한 자연습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 이상이 서식하는 습지 등으로 요건을 더 엄격하게 둔다. 틀린 표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종이 서식하고 있는 습지'이다. 올바르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6종 이상 서식하는 습지'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이 2종 이상 번식하거나 생육장으로 중요한 자연습지' 등이다.
3번: O. 지형보전등급이 Ⅰ등급인 지역은 1등급 권역 대상이고, 다만 주거지·시가지 등을 포함한 개발지 및 농경지는 제외한다. 선지는 이 예외까지 함께 적어 맞는 진술이다.
4번: O. 지침은 어류가 20종 이상 서식하는 자연호소를 1등급 권역으로 본다. 25종이 서식하는 자연호소는 20종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2번은 습지 기준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1종 서식'으로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이 함정이다. 4번은 기준 문구가 '20종 이상'인데 이를 정확한 숫자 암기로만 받아들여 25종 사례를 별개로 오해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정규칙형 문제는 선지 문구를 조문 기준과 대조해 '이상', '이하', 종수, 예외 제외대상 같은 요건어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특히 습지 기준처럼 유형별 세부요건이 나뉜 항목은 임의로 축약된 표현을 경계한다.

암기 포인트

1등급 습지는 '1종 서식'이 아니라 더 강한 정량·정성 요건이 필요하고, 자연호소는 어류 20종 이상이면 1등급 대상이 된다.

NoteBase

문 1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식생보전등급 V등급 지역
② 고산식물지대
③ 유용식물 자생지
④ 원시림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림의 열거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시행규칙에 직접 열거된 유형과 다른 제도의 보전등급 명칭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한 산림이다.

핵심 구분

시행규칙상 지정 대상은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식물 자생지,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자연생태 보전지역, 우리나라의 진귀한 임상 등으로 열거된다.
반면 식생보전등급은 별도의 생태·식생 평가 체계에서 쓰이는 등급 개념일 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대상 유형으로 열거된 항목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식생보전등급 V등급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식생보전등급 V등급 지역
올바른 표현: 시행규칙상 지정 대상은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식물 자생지 등 열거된 산림 유형이다.

② O: 고산식물지대는 시행규칙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림에 해당한다. 고산 환경에서 특수한 식생을 보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③ O: 유용식물 자생지는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산림 내에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식물자원의 자생지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맞는다.

④ O: 원시림은 대표적인 지정 대상이다. 인위적 교란이 적고 유전자원 및 산림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오답 포인트

보전, 등급, 지역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모두 법령상 보호구역 지정 항목처럼 보이기 쉽다. 이 문제는 ①처럼 다른 제도의 평가등급 명칭을 시행규칙상 열거 항목으로 착각하는지를 노린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이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묻는 문제에서는 먼저 조문이나 규칙이 열거한 항목인지부터 본다. 명칭이 그럴듯해 보여도 열거 목록에 없는 등급명·평가명은 오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시행규칙상 열거형이다. 원시림·고산식물지대·희귀·유용식물 자생지는 포함되지만 식생보전등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1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양비둘기
② 고라니
③ 까치
④ 꿩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해야생동물 목록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유해야생동물은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인명·가축에 위해를 끼치는 등 일정한 피해를 일으켜 시행규칙에서 관리 대상으로 정한 야생동물이다.

핵심 구분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해야생동물에는 고라니, 까치, 꿩이 포함된다. 비둘기류는 양비둘기가 아니라 멧비둘기가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 구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유해야생동물 목록에는 양비둘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양비둘기"이다. 올바르게는 비둘기류 중 멧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한다.
② O. 고라니는 유해야생동물 목록에 포함된다. 서식 밀도가 높아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 종으로 관리 대상에 해당한다.
③ O. 까치는 유해야생동물 목록에 포함된다.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전력시설 피해나 인근 생활환경 피해와 관련하여 관리 대상으로 본다.
④ O. 꿩은 유해야생동물 목록에 포함된다. 농림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종으로 시행규칙상 관리 대상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비둘기라는 공통어만 보고 양비둘기와 멧비둘기를 바꿔 외우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비슷한 이름의 종을 정확한 법령 목록과 대조하지 않으면 ①을 맞는 선지처럼 오인하게 된다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형 생물 목록 문제는 동물의 큰 분류보다 별표에 적힌 정확한 종명을 먼저 확인한다. 비슷한 이름의 종이 보이면 목록에 적시된 명칭과 한 글자까지 대조하면 정답을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유해야생동물 비둘기류는 양비둘기 X, 멧비둘기 O이다.

NoteBase

문 1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을 좁게 설치한다.

② 생태통로 입구는 현지에 자생하는 종을 식수하며, 토양은 소독을 완료한 깨끗한 마사토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태통로 내부는 이동하는 동물들의 혼란감을 줄일 수 있도록 수직적 구조를 단순하게 조성한다.

④ 주변의 소음·불빛·오염물질 등 인위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양쪽에 차단벽을 설치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생태통로 설치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폭의 방향, 토양 사용 원칙, 내부 수직구조, 차단벽 설치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생태통로는 도로·개발지 등으로 끊긴 서식지를 연결하여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만든 연결공간이다.

핵심 구분

생태통로는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한다.
입구부는 현지 자생종으로 식재하되, 토양은 현재의 토양을 최대한 이용하고 훼손이 심한 경우 사업시행지에서 발생한 토사를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내부는 동물의 이동 혼란을 줄이도록 수직적 구조를 다양하게 조성한다.
주변의 소음·불빛·오염물질 등 인위적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양쪽에 차단벽을 설치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생태계관리 및 식물 · 2021

선지별 해설

① X
- 설치기준은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하도록 본다.
- 틀린 표현: "폭을 좁게"
- 올바른 표현: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한다.

② X
- 입구부를 현지 자생종으로 식재하는 방향은 맞지만, 토양은 소독한 마사토를 반입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현재의 토양을 최대한 이용하고, 훼손이 심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에서 발생한 토사를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틀린 표현: "토양은 소독을 완료한 깨끗한 마사토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올바른 표현: 토양은 현재의 토양을 최대한 이용하되, 훼손이 심한 경우 사업시행지에서 발생한 토사를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X
- 설치기준은 동물의 이동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내부의 수직적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조로 조성하도록 본다.
- 틀린 표현: "수직적 구조를 단순하게 조성한다"
- 올바른 표현: 수직적 구조를 다양하게 조성한다.

④ O
- 설치기준은 주변의 소음·불빛·오염물질 등 인위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양쪽에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본다.
- 차단벽은 외부 교란을 줄여 동물이 통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돕는다.

오답 포인트

①은 폭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 선지이고, ③은 "단순하게"라는 표현으로 내부 구조 기준을 뒤집은 선지이다. ②는 입구부 식재 기준 일부를 맞게 제시한 뒤 토양 기준을 마사토 반입으로 바꾸어 부분적으로 맞는 선지처럼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태통로 설치기준 문제는 폭, 토양, 내부 구조, 차단벽처럼 기준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넓게/좁게", "다양하게/단순하게", "기존 토양 활용/마사토 반입"처럼 대비되는 표현을 잡으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생태통로는 길수록 넓게, 내부는 다양하게, 토양은 기존 토양 우선, 외부 교란은 차단벽으로 줄인다.

NoteBase